

29장(1) 제사장의 위임식 준비와 위임식 제사

28장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제작한 후에 29장에서는 위임식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다. 제사장은 먼저 몸을 씻고 준비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준비하였고, 제사를 드리면서 위임되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하였으며 세 차례 제사를 드렸고 제단을 속죄하는 일도 동시에 이루어졌다(29:35-37). 그리고 정결케 된 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하였다(29:45-46).

1. 위임식 준비 (29:1-3)

제사장을 거룩하게 임직하는 일은 ‘여호와를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다. 제사장의 임직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 향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는 것이므로 제사를 위한 규정을 알려 준다.

위임식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준비하였다.

2. 위임식의 시작 (29:4-9)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 가지로 준비시켰다. 첫째, 그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

둘째, 아론에게는 속옷, 겹옷, 예봇, 흉패, 띠, 관과 성패를 차례로 입게 하였다. 제사장은 일곱 가지 옷을 온전히 갖추어 입고 여호와 앞에 나아오게 하였다.

셋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관유를 부음으로써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성막에서 봉사하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에 담당하게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제사에 참여하면서 임직되었다.

3. 위임 제사 세 가지 (29:10-28)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세 가지 제사를 드렸다. 첫째 제사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였다. 속죄제는 대속죄일의 제사처럼 ‘정결케 하는 제사’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들의 부정함과 죄가 전가됨을 표시하였다. 수송아지를 잡은 후에 피를 단 아래에 쏟고 기름과 내장을 불살랐으며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 가지고 나가서 살랐다.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봉사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29:10-14).

둘째는 숫양 한 마리에게 안수하고 전체를 단 위에 불로 살랐다.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다(29:15-18).

셋째는 위임식의 숫양이었다. 숫양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숫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손과 오른발의 엄지가락에도 발랐다. 신체의 부분에 발라서 전체에 바르는 것을 상징하였는데, 피를 바른 각 부분에도 의미가 있다. 귀에 피를 바름으로써 여호와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을 표시하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름으로써 여호와에게서 들은 말씀을 바로 행한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숫양의 피는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제사장의 옷에 뿌려서 그들의 옷이 거룩하여지게 하였다. 아론의 제사장과 단이 동일하게 취급되어 거룩하게 되었다(29:19-21). 제단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35-37절에서 더 자세히 언급된다.

위임식 숫양의 기름 부분, 그리고 오른편 넓적다리는 소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요제(搖祭)로 드렸다. 하나님

을 향하여 위로 들어 올리면서 흔들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불사르게 할 수도 있고 그 제물을 화목제 처럼 제사자가 먹을 수도 있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되었다. 25절에서는 요제로 드린 것을 번제물에 더하여 드리게 하였고, 26절에서는 요제로 드린 것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삼아서 화목제처럼 먹게 하였다.

위임식에서는 거제(擧祭)도 드렸다. 거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 주로 사용되었다.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제로 드린 후에 신임 제사장들이 먹었다.

4. 위임된 제사장의 봉사 (29:29-30)

위임식 제사를 화목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야기한 후에 아론의 제사장 의복은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다음 제사장이 기름 부음으로 위임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론의 뒤를 이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칠 일 동안 제사장 의복을 입으라고 하였다. 아론도 위임식에서 칠 일 동안 제사장 의복을 입고 여호화를 섬긴 것처럼, 그의 아들도 임직식 후에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기록하고 있다.

29-30절의 설명은 짧고 문맥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위임식의 정점이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린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섬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의 아들도 동일한 의복을 입고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 아들이 유능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에 상관없이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처음 임직식에서 밝혀 주셨다. 영원한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다.

목상과 실천:

제사장 위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성막에 관한 규례를 가르치면서 제사장의 옷과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길게 다룬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막 건설의 일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된 것은 그의 위임식이 7일 동안 이루어진 천지 창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5-31장 사이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말이 7번 나와서 성막의 건설이 재창조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 주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지속된 것도 그의 직분이 재창조의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 준다.

둘째, 성막 건설과 함께 언급되는 제사장의 옷과 임직식은 제사장의 직분이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과 제도임을 상기시킨다. 제사장이 성막과 긴밀히 연결된 것은 그의 의복과 임직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막이 ‘해달 - 숫양 가죽 - 양털로 짠 베 - 청색 자색 홍색과 금실로 짠 베’의 네 겹으로 덮인 것처럼, 제사장이 입는 옷도 ‘속옷 - 청색 겹옷 - 예봇 - 흉배’의 네 겹으로 되어 있다. 제사장이 위임될 때에 그는 제단과 동일시되었다. 위임식 숫양의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면서 제사장의 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발랐고, 제단 위의 피와 기름을 제사장의 몸과 의복에 뿌렸다. 이것은 제사장을 제단의 일부로 표시하는 일이 된다.

이 사실이 현실적으로 함의하는 내용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 우리는 능력과 자질의 관점에서 제사장을 생각하지만, 위임식에서는 제사장을 직분과 제도로 생각한다. 제사장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으로 봉무하였다.

제사장이 성막의 일부로 소개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친숙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사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신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몸을 ‘제물’로 삼고 ‘성전’으로 삼아가서 제사를 드리셨다. 그분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된 그분의 육체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이 성전과 동일시되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절을 읽지 않으면 항상 자기의 능력을 보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직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부르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직분자의 능력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몸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성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29장 (1) 익힘 문제

1. 1)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될 동물들은 무엇입니까? (1절)
- 2)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는 떡과 과자와 전병은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2절)
2. 1) 아론과 그의 아들들 회막 문에 데려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
- 2) 아론이 입는 옷의 순서를 써보십시오 (5-6절)
- 3) 머리에 무엇을 부어 발랐습니까? (7절)
3. 1) 처음 드리는 동물은 무엇이고, 그 제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속죄제 송아지의 피는 어디에 발랐습니까? 이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어디서 불사르라고 하셨습니까? (14절)
- 2) 둘째로 드리는 동물은 무엇이고, 그 제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숫양 한 마리의 피는 어디에 뿌리라고 하셨습니까? (16절)
- 3) 셋째로 드리는 동물은 무엇이고, 그 제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른 숫양 한 마리의 피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신체의 부위에 뿌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뿌리라고 하셨습니까? (20절)
- 4) 위임식 숫양의 피를 단과 아론의 옷에 뿌리는 데에서 생각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 5) 위임식의 숫양의 넓적다리나 가슴은 각각 어떻게 하였습니까? (22, 25절)
- 6)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한 위임식 과정입니다. 빈 곳을 채우세요 (4-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려다가 () → 옷을 입히고 ()를 머리에 바름 → 수송아지를 ()로 드림 → 숫양 한 마리를 ()로 드림 → 다른 숫양 한 마리를 드림
4. 1)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누구에게 돌리라고 하셨습니까? (29절)
- 2) 7일 동안 진행되는 위임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0절)